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전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골로새서 1:21)

대한천주교총회 창설 100주년 기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5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모든 성도들이여, 기도로 준비하라!

제3차 청지기 훈련, 10월 28일 저녁 7시 금요일

피택장로 주제발표 “유다지파”

금주(21일), 금요일집회시

올해 마지막 청지기 훈련이 10월 28일 금요일집회 시에 있습니다. 갓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기부인(마 26:39)**”에 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로부터 기도토 준비하고, 가족적 금식도 하시기 바랍니다(행 13:2). 말씀을 대언하시는 위임목사님과 충현의 전 성도들이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찰림을 받아 일어났던 회개의 역사가 10월 28일 청지기 훈련에서도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행 2:38).

비록 분주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는 일입니다(갈 6:14). 청지기 훈련을 통해 우리는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마 6:24, 25). 나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맹명 얻는 회개”(행 11:18)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새길 수 있습니다(마 3:30).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복음의 잔치인 청지기 훈련으로 나아오십시오(마 11:28).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시사 천지를 살피신다. 따라서 온 우주는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다.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계속하여 움직이고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들은 자신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 주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인간의 시간 개념과 다르다. 성경의 시간 개념은 한 순간을 영원으로 표현하시며 또한 영원도 한 순간으로 본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곧 영원 안에 계신다. 이 영원한 시간의 흐름 가운데 다시 오고 돌아오고 돌아가는 중복이 아니라 시작에서 끝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한 시간의 흐름 가운데 부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역사의 정점을 향하여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며 영원을 사모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삶이 영원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당과 지옥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언급하시면서 생명의령을 기록된 자와 안 된 자를 구별하신다. 이처럼 우주의 광대함과 인간을 비교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매우 귀하다. 신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총이라 부른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과 은총이 말로 표현 할 수 없이 깊고 넓고 무한함을 설명한다. 신자 하나님을 살피신다(골 7:17-19).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골 1:13-14).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서 우주 밖에 계시고 편재하심도 말해 주고 있다. 어느 곳에 계시고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심지어 음부,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까지 계신다. 그러나 그곳에 갈하는 것도 아니며 제외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모든 곳에 동시에 임재하신다. 이와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따라서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신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다. 특별히 구별된 장소 시나 새 예루살렘을 지적해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성육신하시어 오셨다.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는 성령님이 계신다. 신자 개개인에게 성령님께서 내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과 땅을 채우시지만 이 모든 것에 내재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만 내재하신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에게 내재하신다(골 14:23). 바울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재하신다고 하였다(엡 4:6). 아들이신 하

깨어, 이 말씀을 들으라!(금요일집회)

선택적인 내재

왕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의 앞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시 139:7-8).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것은 신자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큰 도움이 된다. 먼저 신자들이 죄의 유희를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하여 근심과 걱정, 두려움 때문에 위로를 확신케 준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감옥에 갇힌 신자들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위안을 발견하였다. 그리스도는 항상, 즉시로 대할 수가 있다(시 73:21, 23-24).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무소부재와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에 대해 머리로서 이해하며 알고 있을 뿐 경험 즉 체험이 없다는 것이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창 28:16). 우리도 야곱과 같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또 순간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된다(마 28:20). 따라서 우리의 의무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길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믿고 감하게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마 16:24; 고후 5:17). 쉬지 말고 기도하자(살전 5:17).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신앙의 삶은 참으로 중요하다. 이에 대해 주님은 말씀하셨다(마 14:20, 17:23, 26). 바울도 고백하였다(갈 2:20).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이 비밀은 신자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골 1:27).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증거하고 있다(계 3:20). 성령님께서는 모든 신자 안에 내재하신다(고전 6:19; 롬 8:9). 삼위일체 세 분이 그리스도 안에 내재하시는 것은 각각 삼위가 임재하시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머리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일체를 갖게 된다(마 14:10, 20).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 곧 모든 곳에 전적인 하나님으로 임재하신다. 그러나 그는 또한 특별하게 국한되어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각의 다른 방법과 정도로 다르게 하여 자신을 나타내실 수가 있으시다. 창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그분께서 최종적으로 거하시는 곳이며 또한 그의 창조물,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본부가 된다.

나눔도 신자들 안에 내재하신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과 자신의 임재를 특별하게 나타내신다는 사실은 신자들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고 또한 두려움이 될 수도 있다. 예전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는 야담과 이브에게 아담을 교배와 축복의 원인이었지만 그들이 타락한 후에는 공포의 원인이 되었다(창 3:8). 하나님을 거역한 요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경을 피하여 도망치게 되었다(온 1:3). 다윗

"APPOINTMENT TIME WITH GOD"

"For we must all appear before the judgment seat of Christ, so that eachone may be recompensed for his deeds in the body,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whether good or bad." (2 Corinthians 5:10)

Many people today keep daily, weekly, and monthly planners to schedule their activities. Some use a calendar to mark the dates for their commitments, and some fortunate others can still rely on just their memory for meetings. Whatever method you use to remember your engagements, the bottom line is that you have to meet someone and be somewhere at a certain time, like the doctor or dentist's office, friend of family's home, church service, or some type of work place. Everyone has appointments to keep. Sometimes you can delay or cancel them, but no one can get out of their appointment time with Jesus Christ at His throne. This appointment is inescapable!

You will stand in front of Jesus Christ our Savior. Today's Bible verse is quite clear, "For we must all appear before the judgment seat of Christ". No one is exempt from this gathering. John 5:21-22 says, "For just as the Father raises the dead and gives them life, even so the Son also gives life to whom He wishes. For not even the Father judges anyone, but He has given all judgment to the Son." Jesus has total power in this meeting. If you do not know Him, you are unsaved. Unsaved people face hell-fire consequences. Acts 10:42-43 says, "And He ordered us to preach to the people, and solemnly to testify that this is the One who has been appointed by God as Judge of the living and the dead. Of Him all the prophets bear witness that through His name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receives forgiveness of sins." Jesus Christ is the Savior. He came to this earth to save human beings from eternal death. He died on a cross in payment for our sins. He is the only source for the forgiveness of sin. He is God's grace to a fallen world. "God will judge the secrets of men through Christ Jesus"(Rom. 2:16). Right now, we are talking about Jesus Christ as our Savior, but at this appointment, if you do not know Him, you are in deadly trouble. There is no second chance, no grace or mercy, at His judgment seat. The time for salvation is now.

You will stand in front of the omniscient Jesus Christ. You cannot deceive or exaggerate your position with Him. He knows everything about you. John 10:27 says, "My sheep hear My voice, and I know them, and they follow Me." Before you face your judgment call, if you already know Him, then you already follow Him, but if you are meeting Him for the first time on that day, you have no excuse. He knows your heart. He knows what rules you do and do not follow. He knows how much money you have made, and how well you have managed it. He knows what books you have read, and every secret in your life. He knows every thought you have had and every word

that has come out of your mouth. 2 Timothy 4:1-2 says, "I solemnly charge you in the presence of God and of Christ Jesus, who is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and by His appearing and His kingdom: preach the word; be ready in season and out of season; reprove, rebuke, exhort, with great patience and instruction." Do you proclaim the gospel in your life? Where is the majority of your energy and time spent? Is it concentrated on your family or kids, perhaps your business ventures, or maybe on just having fun? Think about it because Jesus Christ knows about it.

You will stand before Jesus Christ whom gave you a commandment. Acts 1:8 says,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shall be My witnesses both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even to the remotest part of the earth." Have you been His witness? Is your life a testimony to this or other things? 2 Corinthians 5:20 says, "Therefore, we are ambassadors for Christ, as though God were making an appeal through us; we beg you on behalf of Christ, be reconciled to God." Have you been His ambassador, or occupied with other commitments? Philippians 2:14-15 reminds us, "Do all things without grumbling or disputing; so that you will prove yourselves to be blameless and innocent, children of God above reproach in the midst of a crooked and perverse generation, among whom you appear as lights in the world." Please, ask yourself, whether you appear as a light in the world. Jesus Christ commanded you to be His light.

You will stand up before Jesus Christ who rewards the faithful. Revelation 22:12 says, "Behold, I am coming quickly, and My reward is with Me, to render to every man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What have you done? Paul testifies, "in the future is laid up for me the crown of righteousness, which the Lord, the righteous Judge, will award to me on that day; and not only to me, but also to all who have loved His appearing"(2 Tim. 4:8). Are you looking forward to your crown of righteousness? "Blessed is a man who perseveres under trial; for once he has been approved, he will receive the crown of life which the Lord has promised to those who love Him"(Jam. 1:12). Faithful followers of Jesus Christ are often dishonored on earth, but highly honored at Jesus' heavenly throne.

My dear friend, your appointment time is coming soon. Are you excited or scared? Do you look forward to this day, or are you dreading it? With whatever time God has given you, please use it for His glory. Deny yourself now, and take the cross He has given you to follow Jesus. Your choices are critical, and ultimately eternal. 

다음 주일 설교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후 5:10)



김석관 목사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일간, 주간, 월간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달력에 약속 날짜를 표시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기억력이 출중한 사람들은 모임 날짜를 머릿속에 기억해 둡니다.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든 공통적인 사항은 우리가 누군가를 특정한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 친구 가족의 집, 교회 예배당, 작업실 같은 곳에서 말합니다. 누구나 지켜야 할 약속이 있는 법입니다. 때때로 세상의 약속을 미루거나 취소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서게 될 약속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이 약속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이 원저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21-22은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은 심판에 대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만일 주님을 모른다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 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42-43은 말합니다. “우리를 명하시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 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자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로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명함으로 치닫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은 은총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롬 2:16). 지금 당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심판의 날에 그곳이 증명되지 못한다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곤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은총도 자비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전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속임수도 허세도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27은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심판대에 서기 전에 이미 주님을 알고 그분을 따르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 처음으로 그분을 만나게 된다고 해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슨 규칙을 지키거나 어기는지 아십니다. 또한 우리의 수임이 얼마인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십니다. 심지어 주님은 우리가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도 아십니다. 따라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감출 수 있는 비밀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생각과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

든 말을 아십니다. 디모데후서 4:1-2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은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십니까? 여러분의 힘과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혹시 가족이나 아들, 또는 사업이나 단지 즐기는 데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에 대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은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20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신입니까? 혹시 다른 일에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14-15은 말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니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스스로 자존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세상의 빛인가? 참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빛이 되라고 명하셨습니다.

상 주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신실하게 믿음을 지닌 자에게 상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12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바울은 증거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 4:8). 여러분은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시름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약 1:12).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자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 앞에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대되십니까?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은 이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날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얼마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오직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이 해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영원한 미래가 결정됩니다. **A**

수요 1부 예배 메시지

그리스도 자녀들에게 임할 영광 (골 3:4)

“영광”이라는 말에는 “경배, 찬양, 존경, 경외”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 영광을 바라며 많은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지만 성경은 말한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있음이라” (골 3:3). 특히 “이는 너희가 죽었고”의 말씀을 세기라. 우리는 자신의 명예, 위신, 자존심을 죽어야 한다. 그래야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벗날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골 1:11).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십자가를 깨달은 자이며 이들은 자기를 부인하여 낳았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의 죄수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작은 자이다. 매일 회개해야 한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볼 수도 들 수도 없다(눅 10:24). 그리스도의 자녀들에게 임할 영광은 인격, 공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다(벧전 1:10). 십자가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 이 상급을 얻지 못한다.

그들이 못 얻은 상급이 있다. 금세에 우리가 받을 영광이 있다. 그러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볼 수도 누릴 수도 없다. “예배에서 가라 사마 내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제나 어머니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도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제와 모친과 자식과 전도를 백 배나 받되 핍박을 견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막 10:29-30). 이 말씀은 깨닫기 힘들다. 예수를 잘 믿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금세에 받는 복이 있지만 핍박도 견하여 받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마태복음 16장에 잘 나타나 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막 16:16)의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바요나 시몬!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막 16:17). 예수님께서 혈육이 아닌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진 복을 말씀하신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막 16:18). 이어지는 마태복음 16:19부터는 본격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주님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 “은혜로 주 열골 받으리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찬 289장).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추어진 영광을 누릴 수 있

다.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할 영광은 십자가이다. 십자가 없는 영광, 축복의 가르침에 속지 말라. 십자가 속에 감추어진 영광을 깨달은 자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고후 9:8). “주 날개 밑 내 곁에 편안히 쉬며”(찬 478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만 근신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침을 풀었나”(찬 455장). 은총의 상급이 임할지 바란다.

기업을 보충으로 받는다. “그리스도 안에서”(엡 1:13-14)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고전 2:9-10).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신 것은 인간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이다.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의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모습을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큰 영광의 축복을 주셨다.

영광의 축복. 영광의 축복이 내려진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롬 8:18). 이 세상 살아가며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가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더불어 살아가길 322. 영광의 자원을 누릴 수 있다(롬 8:21). 천국 천지에 초대되었음을 진실로 감사하라(눅 13:29).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골 3:23).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찬양뿐이다. 예수님의 재림 시 모든 것은 불타서 없어진다(벧 2:14).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새 것이 되어야 한다. “그가 만물을 우리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물음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빌 3:21). 가지 없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지 말라.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찬 348장).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하라. 오직 주를 위해 살라.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롬 8:23).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 천국을 그러리라. 천국은 내 공로, 원함으로 갈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 영원의 자녀가 됩시다. 은총의 자녀가 됩시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십시오(찬 226장).

제3차 청지기 훈련을 기대하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의 뜨거운 태양도 2005년도 단기선교의 열기 속에 누그러지고, 이제 겨울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 온다”(찬 256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회개자 추수하게 되었도다”(요 4:35).

주님의 음성이 저의 심령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제3차 청지기 훈련(예수님의 기도) 때 하나님께서는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막 26:41) “시침이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눅 22:46)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2005년에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길도이며, 훈련의 청지기들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제2차 청지기 훈련(내가 홀로 있는지라)을 통하여 에스겔이 환상 속에 보았던 하나님의 실상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죄인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겔 9:8). 그러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고 흑암의 권세에 묶여 있는 영혼들에게 걸이요, 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날마다 증거해야 함을 마음 중심에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1, 2차 청지기 훈련 시간에 죄인의 심정으로 말씀 앞에서 깨어지며 눈물로 회개하였던 은총의 시간들을 저는 오늘도 떠올립니다. 이번 3차 청지기 훈련에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 주실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망하는 주님! 말씀을 선포하실 위임 목사님을 권하는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훈련의 모든 청지기들이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부인” (막 26:39) 3차 청지기 훈련을 통하여 훈련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김연태 (안수집사, 9교구)

『피택자 교육을 마치며』

더 낮아지게 하소서

“어호와 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전 실제로 그전까지는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모든 것에 “내가 주인”이 되어 제 마음대로 살아 온 죄인입니다. 죄인의 제 마음대로 살면 선교를 준비하는 중에 뜻밖에도 안수집사 추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직분을 받기에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더욱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한 제에게 주께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믿음과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교육을 받으면서 날 위해 고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했으며, 말씀의 소중함도 깨닫지 못하고 직분의 귀함도 알리고 하지 않았던 교만한 저의 모습을 회개하였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교만하고 무지한 저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사실을 전설로 깨달았을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훈련 과정을 통해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동안 겸손하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철저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여! 주의 보혈로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이 죄인을 씻어 주소서.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해도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제 아내의 암을 두 번씩이나 치료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충성되어 여저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러 보내 주시고 제게 대제이런 귀한 직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의 남은 생명을 전부 드리고자 합니다. 죄인인 저를 사랑하시니 기다려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최진성 (전택안수집사, 15교구)

■ 피택장으로 주제발표

피택장로님들이 발표할 내용을 요약한 것이니
미리 읽어 보시고 금주 금주집회(21일)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욱 큰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유다지파

서론

한글

1.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2. 유다의 출생

3. 유단의 삶

결론

4. 유다의 가족

5. 유다에 관한 구약의 예언

6. 유다에 관한 신약의 예언

서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배반하여 영원히 죽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여기를 두고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시며 메시아를 약속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민족의 후손으로 성육신하셨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조대로 약한 죄인들이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구약의 종파들 마르다함, 이리, 아람, 유대자 그리스도의 선조인 것도 같은 것이 행한 선한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들이 매함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 때문이다. 우리 같은 죄인을 비롯해서 죄인인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무조건적인 은혜이다.

부록

1.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은 인간의 의로운 구원을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오직 전적인 은총으로 만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작정하셨다. 은총의 자비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도 메시아를 약속하셨다(창 12:1-3). 아브라함 가문은 원래 야벳을 숭배하였으므로 내세를 의가 없는 가문이다. 따라서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수 24:2). 택하신 그를 통해서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창 17:8, 창 25:25). 구속 사역을 구속 사역의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성취되게 하신다(골 2:17-19).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연한된 죄인이라 할지라도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의 증거이다. 아브라함, 이삭은 죄인이었지만 은혜에 의한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2. 유다의 출생

그 동안 요새 때문에 가려져 있었지만 구석에 있어서 아픔의 열두 아들 중 유다 만큼 중요한 인물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아픔의 유언을 통해 메시아에 관한 매우 충요한 예언을 유다에게 주셨다(창 49:10). 유다의 부모세대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픔을 라반의 집에 보내 레아와 결혼하게 하신 것에서 놀라운 구석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바로 유다의 총명이다. 유다(29:35)에서 인생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사용하여 주신 유다를 태어나게 하시다(1:2, 창 29:35).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메시아에 대한 가장 귀한 예언을 받고 실질적인 장자의 삶을 살았던 유다를 선물로 주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가시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언제나 오직 당신의 기묘신 의 거침신 뜻대로 행하시는 은총이다(로 9:15-16). 이것이 바로 유다의 총명이 갖는 은혜요 비밀이다.

3. 유다의 삶

아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란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창 32:27-28, 35:10-12).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름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이끄셨다. 그에게는 열두 아들
이 있었는데 아들 중 요셉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귀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영적·구속사적으로 보면 실제 주인공은 유다이다. 요셉의 다른
우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루로 사탄의 힘을 유다의 조역에 불려왔다. 노환 가

나안에 기근이 들어 요셉을 만났을 때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자도 다름 아닌 유다였다. 동생 베냐민과 함께 요셉 앞에서 자신들의 지난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 자도 유다였다(창 44:16).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하셨다.

4. 유다의 가족

유다 가족들은 이 이상의 그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은총의 극치인 유다 가족사(창38장)는 요셉의 이야기 중 갑자기 나오는데 그만큼 구약사적 인 위치에 있어 중요한 것이 때문이다. 유다는 유다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직접적으로 메 야에 대한 연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히 7:14). 그는 그리스도의 가장 친한 유다. 그는 과연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 유다는 죄의 노예였고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는 악을 행했다. 유다의 가족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한 자들이었다(창 38:7). 무엇보다도 다말은 사이버지 유다와 동침하여 쌍둥이 자녀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들은 죄악의 세태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죄인들을 통해 이 세상이 오셨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택하신 백성들은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유다 그리스도의 계보는 수치스러운 죄인들을 포함하다. 사람들은 요 션을 동경하고 예수를 부러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한 유다를 사용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인 유다의 가족사는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타낸다.

5. 유다에 관한 구약의 예언

아름이 자신의 열 아들들에게 유언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가 강림을 해코로 하는 예언을 했다. 아람계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을 이사와 아람 그리고 그의 아들 유다를 통하여 이어가자(창 49:8-10). 유다 자손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였다. 유다는 지금까지 요셉만 주목하는 편견을 가졌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축복을 받은 유다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아람은 유다에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축복할 때 '홀, 지팡이, 실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창 49:10). 홀과 지팡이는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의미한다. 이처럼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사명을 위임받았다. '실로'는 '안식의 완성자'로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아람 유다에게 증거했던 예언의 축복을 따라 유다 지파에 의해서 메시아의 언약이 계속되어왔다. 다섯은 그의 왕권을 아사 술로몬에게 물려주면서 유다지파를 통하여 왕권이 계속 유지되어 갔 것을 증거했다(대상 28:4). 시편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세상에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시 26:7). 이사가 천지자도 다섯 왕가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다(시 11:1).

6. 유디에 관한 신약의 예언

신약의 기자들은 매우 그리스도께서는 유대교파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증거했다(계 5:5).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 측면에서 계시하였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교파의 사자”(시49:10). 이것은 유대교파와 왕의 지파이며 궁극적으로 왕 중의 왕인 메시아가 유대교파에서 나온 것을 가리키는 예언이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이다. 이것은 다윗왕의 혈통에서 나신 메시아를 가리키는 구약적인 표현이다(사 9:7).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다(계 1:1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셨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육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으로 인간을 위한 구속 사역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이것으로 구속 사역은 완성된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보다 더 큰 기쁜 약속은 없다. 모든 약속의 결실이고 완성이며, 모든 예언의 궁지이다.

결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사람들의 행위로 공로로 볼 때 모두가 행원없는 죄인들이다. 특별히 유다인과 그 가족들이야말로 그 어떤 경악에도 계보에 손이 닿지 않는 악한 자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런 악한 죄인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사람들의 후손이니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악한 죄인들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인과는 사조로 이 세상에 오셨다. 특별히 유다의 가족들은 죄의 역사가운데 주님은 이들을 사용하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실 때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기준으로 삼지 않고 아무런 행원없는 죄인들에게도 긍휼히 여기시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사로만 행하셨다. 이것이 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비없는 방법이다. 사람들은 위대한 요셉을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유다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용하셨다(창후 1:3).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역시도 행원없는 죄인들에게만 늘라는 십자가의 은사로 구원을 받았다. 보혈의 능력은 은총으로 다가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와 같은 주님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삼위일체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오직 십자가만을 주께 아낀다. "주여 이 악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송요한 목사(KKC 선교사)

오직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며

"심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

사랑하는 송요한 목사님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K국에서 사역하는 동안 성도들

의 뜨거운 기도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오

직 기도의 힘으로만 모든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K국에 들어가 도착예배를 드릴 때 저와 우리 가족은 눈물을 흘리면서 K국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고만 연약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때, 우리가 느낀 것은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오직 주께서만 K국 선교사역을 할 수 있음을 확신했고 그 믿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오직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정교회를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은 아닙니다. 이 나라 청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꿈도 없이 방황하며 인생의 목적을 잃고 술, 담배, 마약에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 가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된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물질과 돈에 끌려가는 것이 현재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젊은이들이 그 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서 찾도록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첫 사역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공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예배와 성경공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많은 청년들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말씀과 복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지만, 모든 구원을 행함으로 얻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삶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공부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에 두었습니다. 실제 성경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들었지만, 그들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심자가는 왜 우리에게 유망한 구원의 길인지? 그것을 알지 못했던 젊은이들이 복음 안에서 변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청년들이 복음을 듣고 조국을 변화시키고, 세계 각국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에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역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현지 청년들이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도 바울과 같은 청년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선교지와 가족을 위해 기도와 후원을 해 주신 우리 송요한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모든 목표는 세상에서의 삶에 맞추어져 있었고, 나의 모든 행동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있었다. 내 안에 주님의 자리는 없었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에만 급급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나의 마음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셨고, 주님이 떠난 영혼이 허전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잊고 있었던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되었다. 이런 실패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영혼을 받아 주셨고, 보혈의 은혜로 치료해 주셨다.

우선 예수님은 영적인 굶주림에 대해 깨닫게 하셨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않을 때의 황폐해지고 썩어진 영혼을 발견하게 하신 것이다(요일 2:16). 주님은 나에게 영혼이 굶주려 쓰러져 가는 것을 알게 하셨다.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영혼이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에만 나의 영혼이 채워지고, 은혜로 넘친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내 마음 속에 담겨진 나의 욕심과, 자존심을 모두 내어 버렸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신 것이다.

또한 나의 삶의 목적이 변하기 시작했다(롬 12:2). 예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주의 자녀로 세우셨고 그에 합당하게 주님의 뜻대로 자라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선하신 일,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삶의 순간 순간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였다. 자꾸만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나를 낮추고 주님을 찾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닌, 바로 내 마음 속에, 바로 내 곁에 동행하시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던 내가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다. 또한 예수님은 주님으로 인한 고난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도록 나와 함께 그 자리에 계셨다(요 16:33). 조그만 시험에도 넘어지고, 실패하던 내 삶이 이제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모습만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바뀌었다. 예수님은 세상의 시험 속에서도 평안을 맛보게 하셨고, 주님의 권능으로써 이길 힘까지 주셨다. 움켜쥔었던 것을 내려 놓음으로써 예수님은 나에게 임하셨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 내가 하던 모든 일을 주가 담당하시므로써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고, 나는 아무 것도 아니고 오직 주만이 모든 것이 되심을 찬양하게 되었다.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며, 오직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시 23:1-3).

김윤복 (대학부)

★ 이번 주에 출판하는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10월 17일(월) ~ 10월 25일(화)	함월루아 천양대	최세진	10월 18일(화) ~ 10월 25일(화)	영아부	김성호
10월 18일(화) ~ 10월 25일(화)	장년부	김연태	10월 21일(금) ~ 10월 28일(금)	임아누엘 천양대	강민수

★ 안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10월 10일(월) ~ 10월 17일(일)	이연천장대	김문섭	10월 10일(월) ~ 10월 18일(화)	6교구(주거)	김병주
10월 10일(월) ~ 10월 18일(화)	탁아부	정원근	10월 11일(화) ~ 10월 19일(수)	장로(2)	정선현
10월 10일(월) ~ 10월 18일(화)	유치부	오순도			

★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10월 3일(월) ~ 10월 8일(토)	초등부(주거)	지규성	10월 4일(화) ~ 10월 13일(월)	1교구(주거)	김신국
10월 3일(월) ~ 10월 11일(화)	4교구(주거)	이홍우	10월 4일(화) ~ 10월 13일(월)	장년2부	권오준
10월 3일(월) ~ 10월 11일(화)	8교구(주거)	김종훈	10월 6일(목) ~ 10월 15일(수)	소년부(1)	홍성욱
10월 4일(화) ~ 10월 12일(수)	1교구(주거)	구원섭	10월 6일(목) ~ 10월 15일(수)	4교구(주거)	류기명
10월 4일(화) ~ 10월 13일(월)	2교구(주거)	정윤희			

열의심

주 하나님의 독생성자
그리스도의 사랑 더욱
승하여 살결 찢긴
피담뱃버스로 십자가를
참으시사 사탄 마귀의
사망권세를 이겨내셨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듯
주 부활하심은
우리 성도들을
위하심인 바
대적자를 위함이
전혀 아니시어라

오오 할렐루야
그 크신 역사여
무덤을 열으셨네
새벽을 깨우시듯
커튼을 제키시듯
지성소 휘장을
찢어내리시듯

그 위대하신 영광을
기뻐 찬양드리세
영원토록 경배받으실
그 이름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길이
높이고 또, 또 찬하세

김정수 (집사, 1교구)

교회 탐방 64 고등부(봉사부)

그리스도의 편지

자신이 남을 위해 믿음을 만드는 것을 의식한다면 그것은 이미 봉사가 아니다. 자신의 행위가 봉사인지도 모르고 봉사 할 때 그것을 진정한 봉사로 말할 수 있고, 주님은 바로 그런 봉사를 원하신다. 고등부 봉사부 학생들을 만나면 이들이 얼마나 낮은 자세로 남을 섬기는지를 알 수 있다.

고등부 봉사부에서 하는 일은 어떤 것들입니까?

5부 예배 때, 언급위원회로 예배를 돕습니다. 그리고 고등부에서 주보를 관리하기도 합니다. 또 봉사의 행사 때, 전적으로 나서서 일이 잘 진행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김재연 교사)

많은 부서 중 봉사부를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친구들이 언급위원을 하는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아 나도 주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봉사부에 들어왔습니다. (홍승윤)
친구가 권유하였습니다. 또 봉사부에서의 교제를 좋아합니다. (유용현)
복음을 위해 더불어 살아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봉사로 하고 싶습니다. (주민성)

봉사부에서의 특별한 보람은?

봉사부라는 소그룹에서 부원끼리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면서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설)
선배들의 인도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봉사부 안에서 사랑과 교제가 돈독합니다. (홍승윤)
저 역시 고등부 때, 선배가 이끌어 주셔서 봉사부에서 활동했습니다. (김재연 교사)

봉사부원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봉사는 주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용현)
민음의 바탕이 주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주께 영광 돌리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홍승윤)
봉사는 자연스럽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몸에 배어있어야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을 다시 돌려 드리는 믿음으로 봉사에 임해야 합니다. (주민성)

봉사하는 사람은 보상을 바라지 말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 보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백민호)

봉사부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 안에서 봉사가 무엇인지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봉사부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동기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봉사부는 전도의식을 띄워 주는 기반이라고나 할까요. (고용설)

몸은 힘든 만큼 영적인 유익도 크겠군요?

행사를 마치고 청소하면서 서로 교제하는데 그 때 사랑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손길을 느끼곤 합니다. (이동훈)

주요 일을 했다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쓰임 받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쁩니다. (주민성)
언급 봉사를 하면서 예배에 집중이 안 될까 봐 염려하였는데 주님의 은사로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용설)

봉사 후에 오는 기쁨과 고마움의 맛은 정말 각별합니다. (홍승윤)

무엇보다 평안이지요. (유용현)

민음이 지라는 것을 느낍니다. 주의 일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알아 갑니다. (백민호)

봉사부를 이끌어 가시는 선생님들의 보람은?

온갖 굵은 엮을 하면서도 늘 웃고 있는 부원들을 보면서 감동합니다. 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먼저 나를 부인하며 '술선수배 해자' 하며 다짐하게 됩니다. 이들의 내면의 믿음을 보면서 이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라는 희망을 봅니다. (김재연 교사)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 힘든 일을 하겠노라 자만한 젊은이들을 보는 기쁨이 갑박합니다. 그리스도자 십자가를 통해 보여 주신 신실과 외연을 겸손하게 실천하는 이들은 과연 주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집실)

다음주일 찬송

254장
주 은총 입을 종들이

메리 코넬리아 비숍 게이트 여사(Mary Cornelia Bishop Gates, 1842~1906)의 찬송으로 기독교 협력협회 연차회의에서 소개된 것이 이 찬송을 유명하게 한 시조인데 이 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찬송이다.

1절은 주의 종들이 이 지구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야 하겠으니 가야 할 곳은 어디든지 보내달라는 간구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대적용 103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신 다음 이들에게 일러버린 이 스러짐의 일을 구원하러 나가고라 명하셨다. 우리는 어디로 보냄을 받은 일꾼이란 말인가?

2절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일러버린 양' 때로다(창50:6)라고 한탄하시며 "그 목자들이 그들의 결집로 가게 하여 신으로 돌이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신으로 돌아오니니 할 것을 잊었다"라고 하셨다. 그 잃은 양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주님이 보내시는 명령에 순종하여 나가야 할 것을 찬양한다.

3절은 주의 제자들이 하는 일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성한 심령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저 지 최종에 빠져 해매며 죽어가는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4절은 주 자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는 말씀과 성령의 검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사탄과 싸울 때 믿음의 승리를 하려해 주실 것임을 찬양한다.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땅 끝까지 전해야 한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의 일러버린 영혼을 찾아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한다. 이 놀라운 사명을 맡겨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충현의 모든 성도가 되자.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 복음 전도의 자리로 달려가자.

(찬양위원회)

새 · 가 · 록 · 을 · 환 · 영 ·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751	김한규	19	대학부	박성열(17)
2752	최병원	19	청년1부	김연세(6)
2753	박동진	19	청년1부	김연세(6)
2754	김성관	19	청년1부	유경선(7)
2755	조병석	19	청년1부	문금진(11)
2756	구병남	2	청년3부	한현학(3)
2757	공미화	2	청년2부	한현학(3)
2758	이성진	19	청년1부	
2759	김효수	2	청년2부	신순희(17)
2760	장수진	6	청년2부	이민선(6)
2761	이종혁	3	청년2부	
2762	유진자	10	청년2부	김종석(19)
2763	박익순	19	청년2부	이영환(2)
2764	주세환	19	고등부	김은숙(2)
2765	김지은	19	고등부	김은숙(2)
2766	전유진	19	대학부	김은숙(2)
2767	거서호	19	외선부	유미도(19)
2768	최현배	19	청년1부	정용희(2)
2769	김영희	1	청년1부	김순재(17)
2770	김미희	10	청년1부	김종석(19)
2771	이주희	1	청년2부	이희환(1)
2772	박성록	19	청년1부	곽성조(7)

* 중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5호 새가족 등록표 오시기 바랍니다. *

